

COP31 개최국 튀르키예, 가뭄 우려 속 농가들의 적응 노력

(Farmers fight to adapt as droughts loom in COP31 host Turkey)

튀르키예에서 농업은 전체 경제 생산의 약 5%를 차지하지만, 국가 전체 수자원의 79%를 소비하고 있다. 튀르키예 정부에 따르면, 농업용수의 절반 가까이는 비효율적인 기반시설과 관개 방식으로 인해 손실되고 있다. 지중해 연안 안탈리아에서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월요일 개막하는 가운데, 이곳에서 서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소케(Söke) 지역에서 900데카르(약 220에이커) 규모의 농지를 경작하는 59세 농민 카박(Kabak)은 더 이상 지속적인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스페인, 풍작 전망에 올리브유 가격 안정 위해 생산량의 12% 출하 보류

(Spain to hold back 12% of olive oil production to stabilise prices after bumper harvest)

스페인 농업부는 금요일, 올리브 수확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격 안정을 위해 2026/27년 올리브유 생산량의 12%를 출하하지 않고 보관하도록 생산업체에 명령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올리브유 생산업체들은 금요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생산량의 12%를 보관해야 한다.

출처: Thomson Reuters